

“중국 리그에서도 우승 위해 노력할 것”

김연경, 페네르바체 떠나 상하이 구오후아라이프로 이적... 역대 중국 여자배구 최고 대우 받아

중국리그 상하이 구오후아 라이프가 이적한 김연경(29)이 우승을 다짐했다. 한국 여자배구 올스타는 6월3일 오후 4시 태국의 방콕 후아막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한국-태국 여자배구 올스타 슈퍼매치'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31일 오전 인천 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전날 중국 상하이와 입단 소식을 알린 김연경도 출국장에 올랐다. 김연경의 매니저먼트사인 인스포코리아는 전날 김연경이 상하이와 입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1년 계약)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김연경이 역대 중국 여자배구 최고 대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경은 출국 전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 리그에 진출하는 소감을 밝혔다. 김연경은 “작년 12월부터 상하이로부터 제안이 왔다. 중국 리그로 이적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시간 고민했다. 일단 결정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모데에서 모습을 보여주고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중국에서 1년 뒤 후에 다시 유럽리그로 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대표팀 일정을 마

무리 한 후에 소속팀에 합류할 것이다. 향후 일정으로 9월 세계선수권 예선이 있다. 대표팀 일정에 따라 합류 일정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페네르바체에서 보낸 6년 동안을 회상하기도 했다. 김연경은 “6년 동안 뛰었던 팀에서 뛰는 게 쉽지 않았다. 예대, 나탈리아 등 팀 동료들이 연락이 와서 ‘정말 가는 것이 맞나?’ ‘안 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그래도 내 결정을 존중해줘서 고맙고 터키에서 좋은 추억이 생겼다고 말했다. “터키리그에서 많은 것을 이뤘다. 김연경은 “우승을 차지했고, MVP도 차지했다. 후회는 없다. 잘 시작을 해서 잘 마무리한 것 같다”고 전했다. 올스타 슈퍼매치에 임하는 각오도 전했다. 그는 “좋은 경기력보다 즐기고 재미있는 경기를 하겠다. 태국과의 경기는 정말 기대된다. 관중석이 매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태국 사람들은 나를 길 가다가 알아볼 정도로 세계 유명 선수들을 잘 알고 있다”고 배구 열기가 뜨거운 태국에서의 경기를 기대했다. 2005년 흥국생명에서 데뷔한 김연경은 V-리그 최정상급 공격수로 활약했다. 이후 JT 마블러스(2009~2011년)를 거쳐 2011년부터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뛰면서



오는 6월 3일 태국에서 열리는 한국-태국 여자배구 올스타전에 참가하는 여자배구 강판스타 김연경(구오후아 라이프)이 지난 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팬들의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고 있다.

세계 정상급 기량의 레프트 공격수로 자리매김했다. 상하이의 러브콜을 받은 김연경은 이제 중국 리그를 평정하기 위한 여정에 돌입한다.

한편, 김연경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도 메달을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근기자

전북, 전국소년체전 59개 메달 획득

전라북도선수단이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총 59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충남 일원에서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열린 대회에서 전북선수단은 33개 종목에 795명이 참가해 금메달 17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28개를 획득했다. 지난해 45회 대회에서 금 21, 은 23, 동 37개 등 총 81개를 획득했던 것과 비교할 때 다소 저조한 성적이다. 전북은 이번 대회 종합 13위를 목표로 했으나 대진추첨 결과 단체종목 및 체급종목에서 초반부터 강팀과의 대진이 계속돼 기대했던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특히 기록종목인 육상, 수영, 양궁, 플러스스포츠와 체급종목에서 강세종목인 유도, 레슬링, 태권도 등에서 선전을 기대했으나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부진에도 단체종목에서 농구(전주 남중), 정구(남초부), 펜싱(전북산남(플러레) / 이리중(사브르) / 이리북중(에베), 핸드볼(이리중)이 상위에 입상했다. 또 기록종목에서는 역도에서 3관왕을 각각 차지한 최지호(우이중)와 이하영(용소중), 체조 2관왕인 진현(전북체중), 자전거 임하림(서전중) 등이 선전했다. 한편 이리중은 핸드볼과 펜싱에서 단체우승과 함께 한승민(3학년)이 핸드볼에서 종목별 최우수선수로 뽑혔다.

/정해은 기자



남원 출신 박현우 선수 소년체전 복싱 금메달

장차 남원을 빛낼 스포츠 인재의 탄생을 예고한다. 그 주인공은 지난 30일에 끝난 제46회 전국소년체전 남중부 57kg 페더급에 출전하여 당당히 금메달을 따낸 전북체육중학교 3학년 박현우 선수. 또한 전라북도에 모처럼 만에 복싱에서의 금메달을 선사하여 대회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올해 들어 기량이 부쩍 성장한 박현우 군은 전북 복싱의 유망주로서 기대가 높다. 초등학교 5학년때 복싱에 입문한 박현우는 성실한 태도로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다. 훈련량이 많고 육체적 한계에 도달한 훈련에도 불만 없이 소화하고 있다. 한때 복싱 및 격투기 선수를 꿈꾸었던 아버지(박정환 남원시청 근무)의 적극적인 지원도 박현우의 기량 성장에 한몫을 북돋아 주었다. 내년 전북체고로 진학할 예정인 박현우는 84년 LA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신준섭선수처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시는 84년 LA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신준섭 선수를 비롯하여 남원시청 복싱 직장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풍사에 지난 4월 출범한 남원 거점스포츠 클럽에서는 전국체전 8연패를 기록한 송학성 감독의 지도하에 우수한 유망주를 길러내고 있다.

/남원=유영철기자

MLB추신수, 2경기 연속 홈런

탬파베이와 홈경기서 시즌 7호 선제 솔로포 포함 2타수 1안타 2타점 2득점 2볼넷기록

‘추추 트레인’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가 2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렸다. 추신수는 31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2017메이저리그(MLB)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홈경기에 투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출전 1회말 시즌 7호 선제 솔로 홈런을 포함해 2타수 1안타 2타점 2득점 2볼넷을 기록했다. 전날 탬파베이전에서 솔로 홈런을 포함해 4타수 2안타 3타점 2득점을 기록했던 추신수는 2경기 연속 아치를 그려냈다. 시즌 타율은 0.255에서 0.258로 소폭 올랐다. 타점과 득점은 2개씩 보태 시즌 26타점, 27득점째를 기록했다. 추신수는 1회말 탬파베이 선발 맷 안드리스의 초구를 공략해 솔로 홈런을 만들어냈다. 90마일(145km)짜리 직구를 호쾌한 스윙으로 받아쳐 가운데 담장을 넘겼다.

텍사스는 1회 추신수의 홈런에 이어 엘비스 앤드루스와 노마 마지리의 연속 안타로 1점을 추가했다. 3회에도 선두타자로나와 볼넷을 골라낸 추신수는 5회 타석에서는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추신수는 2-5로 끌려가던 7회 2사 1루에서 볼넷을 얻어내 팀이 추가점을 올리는 데 기여했다. 텍사스는 추신수의 볼넷 이후에 앤드루스의 3점포로 동점을 만들었다. 추신수 6-5로 앞선 8회 1사 만루에서 우익수 희생플라이를 기록했다. 총알 같은 타구를 만들어냈으나, 타구가 야수 정면으로 날아가 타점을 올리는 데 만족해야 했다. 한편 텍사스는 5타수 3안타 5타점을 올린 앤드루스의 활약을 앞세워 9-5로 승리했다. 텍사스는 시즌 26승27패를 기록했다.

/김민근기자



추신수는 31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2017메이저리그(MLB)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홈경기에 투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출전, 1회말 시즌 7호 선제 솔로 홈런을 포함해 2타수 1안타 2타점 2득점 2볼넷을 기록했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